

# 안전문화 진단도구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in Safety Culture Diagnostic Tools

정경옥\* · 이재은\*\* · 정종수\*\*\*

Jeong, Kyung-Ok · Lee, Jae-Eun · Cheong Chong-Soo

### 요약

안전문화가 우리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조직구성원에게 내재화될 때 비로소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조직은 더욱 안전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안전문화 측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안전문화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조직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작업환경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연구·개발된 안전문화 진단도구를 고찰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한 후 안전문화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BCMS 분야에 적합한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eywords** : *disaster, safety culture*, 안전문화, 진단도구, 측정도구

## 1. 서론

2022년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법 시행 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안전문화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을 간과하고 부득이하게 안전 수칙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안전문화가 우리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조직구성원에게 내재화될 때 비로소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안전문화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조직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고,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된 안전문화 진단도구를 고찰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안전문화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론

안전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위험 인식과 행동, 조직의 안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이 가진 안전에 관한 내면적인 척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995년 처음으로 ‘안전문화 모델’을 제시한 Berends의 연구보고서에 보면, 안전문화를 크게 규범과 믿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광물위원회(New South Wales Minerals Council Ltd. : NSWMC)는 안전리더십에 의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모델을 바탕으로 현장의 계층별 안전리더십 행동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외 안전문화 관련 연구는 대부분 현장에 적용 가능한 ‘Model’을 개발하는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주로 안전에 대한 가치관, 안전풍토, 안전태도, 안전행동 등의 안전문화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과 조직의 구조 그리고, 조직문화 등 조직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원자력, 철도, 의료업계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의식수준향상 프로그램’, ‘안전심리 검사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진단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직과 조직구성원을 위해 개발된 안전문화 진단도구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희원 ·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졸업 jkocs@naver.com

\*\* 준희원 · 송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 jaen85@nate.com

\*\*\* 정희원 · 송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isobcm@gmail.com

## 2.1.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연구된 국내 문헌을 분석하여 연도별, 연구분야별, 핵심용어(키워드), 구성요인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술논문,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에 개발된 진단도구와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도구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3. 결론

분석된 연구결과로 안전문화 진단도구의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안전문화 진단도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CMS 분야에 적합한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업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문봉섭, 김기웅, 최연철 (2015) 국적항공사 조종사들의 항공안전문화 인식도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 12(3) pp.88~93.
- 박민규 (2019) 안전문화의 고유속성과 공공기관 안전문화 개선 위한 리더의 도구들.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Vol. 168. pp.60~63.
- 신기령 (2012) 조직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석유화학 장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ends, J. J. (1995). Organisatie, cultuur en veiligheid : Een iteratuurstudie naar organisatiecultuur en veiligheidscultuur (Unpublished interim report).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Eindhoven.
- Health and Safety Corporation. (2016).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Culture of Enterprises.